

질의에 대한 태평염전 답변

태평염전 소금생산위탁계약은 수탁자에게 염전 토지를 제공하고 소금 생산을 위탁하는 계약으로 생산 인력 고용 및 관리 등 생산 관련된 모든 관리 의무와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인력 고용은 수탁자 고유 권한이므로 태평염전은 관리와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태평염전은 2015년 이래 소금생산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들에게 매년 염전 생산 인력 채용을 위한 표준 근로 계약 양식 제공, 염생산 계약 시 공정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염전 종사자 인권 보호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을 안내 해왔으며, 수탁자들에게 염전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숙소 생활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었던 공공 기관들의 인권 실태 조사에 수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안내하여 염전 종사자 인권 현황 파악에 앞장서 왔습니다.

태평염전은 앞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사건이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사건의 형사 기소 확정 즉시 사건 당사자인 장정배 일가에 대한 모든 소금 생산 위탁 계약 체결을 거부 하였으며 행정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전 종사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소금생산위탁 계약서에는 인권 관련 문제 발생 즉시 위탁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인권 노무 전문 변호사를 자문역으로 선임하여 관련 교육 및 노무/인권 실무 자문을 생산 수탁자들에게 제공 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22.08

태평염전